

**한.영 문화예술 컨퍼런스 [다양성과 포용성: 예술과 장애]**

**Korea-UK Arts & Culture Conference [Diversity and Inclusion: Arts & Disability]**

2016 년 12 월 2 일(금) / 국립현대미술관 멀티 프로젝트 홀		
10:00-10:10	인사말	마틴 프라이어 원장, 영국문화원
10:10-10:20	프로그램 소개	최석규 예술감독, 영국문화원
10:20-10:50	<b>기조연설: Unlimited</b>	조 베런트 시니어 프로듀서, Unlimited
10:50-12:10	<b>세션 I: 영국과 한국의 장애 예술 정책 현황</b> -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문화 다양성 정책 - 한국: 장애 예술의 현황 - 토론	아비드 후사인 문화다양성 부서장,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정중은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모더레이터: 홍기원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14:00-15:40	<b>세션 II: 장애 예술 무용 창작 사례</b> - 영국: 칸두코 댄스 컴퍼니 - 한국: 빛소리 친구들 - 토론	페드로 마차도 예술감독, 칸두코 댄스 컴퍼니 김용우 빛소리친구들 모더레이터: 최석규 예술감독
16:00-16:30	장성빈 판소리 공연	
16:30-17:40	<b>세션 III: 미술관과 시각예술에서의 인클루시브 아트</b> - 영국: Tate Exchange 사례 - 한국: 잠실창작스튜디오 사례 - 토론	앨리스 폭스 부학장, 브라이튼대학교 서민지 대리, 잠실창작스튜디오 모더레이터: 김혜선 총감독, 영국문화원
2016 년 12 월 3 일(토) / 국립현대미술관 세미나실		
10:00-12:00	<b>라운드 테이블 B: 한.영 장애 예술 플랫폼</b> - What will be the next?	캐롤 맥페든 프로그램 매니저, 영국문화원 신중호 이사장, 이음 이동엽 작가 아비드 후사인 문화다양성 부서장,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강득주 매니저, 잠실창작스튜디오 모더레이터: 홍기원박사, 숙명여자대학교

**12 월 2 일(금) 컨퍼런스**

**인사말**

**마틴 프라이어(영국문화원 원장)**

어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달성한 진보와 지속가능성, 기술, 퀄리티의 평가를 같이 살펴보았음. 양국이 변화로 인해 어떤 도전을 당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는 예술로만 국한될 수 없는 '다양성'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사이먼 멜러 문화예술총감독께서 말했듯이 영국은 다양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음. 영국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성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테면 영국문화원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왔음. 예술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국문화원은 우수한 장애인 예술가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왔음. 또한 영국의 다양한 활동과 기관들을 통해 다른 기관에 장애 예술을 알리는 촉매 역할을 맡고자 함. 장애로 인해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장애인 관객의 참여도 독려할 것임

## 기초 연설

### 조 배런트(언리미티드<sup>1</sup> 시니어 프로듀서)

언리미티드는 장애인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가장 큰 장애 예술 커미션임. 언리미티드의 설립 의도는 첫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전문 작품을 생산하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작품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러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임. 즉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며, 장애를 초인간으로 본다는 극단적인 관점이 아닌 결국 인간의 여러 삶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음. 장애인 부모는 “유감이다, 안 됐다”라는 말부터 먼저 듣고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갖는 선입견과 함께 싸워야 함

언리미티는 모든 유형의 예술가를 지원함. 신체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정치적 의견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있음. 장애는 인간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꼭 장애 예술이라고 해서 장애를 주제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언리미티드는 세 개의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성 예술가들의 영역임. 영국문화원 덕분에 많은 예술가들이 국제 협력의 기회도 얻었음. 2012년에 올림픽이 있으면서 장애 예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킬 수 있었음. 언리미티드가 장애 예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펀드는 아님. 장애 예술을 지원하는 펀드는 장애 예술 부문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언리미티드는 장애 예술을 대표해 장애 예술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장애 예술가들이 계속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임. 나는 청각 장애 때문에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이 생겨남.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종종 얘기해줬음. 나는 이러한 선입견을 바꾸려고 노력하였고, 나와 같은 사람이 롤 모델이 되어 다른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싶음. 전 세계적으로 장애 예술가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며,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동등한 접근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언리미티드는 장애인이 이끄는 장애인 주도 프로젝트라는 부분에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프로젝트 인원 구성과 선정패널이 5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커미션하는 작품도 장애인이 주도하고 있고, 5명의 다양한 독립 패널들을 보유하고 있음. 결국 변화를 통해 세계의 내러티브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개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백 스테이지 인 비스킷 랜드 Backstage in Biscuit Land><sup>2</sup>라는 작품이 있음. 뚜렛증후군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증세를 말하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분은 매일 비스킷이라는 말을 만 육천번 하는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함. 하지만 투렛장애에는 유머가 있어 이 작품은 영국 내에 3번이나 투어를 했으며 BBC에서 방송까지 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음. 입주 작가로도 활동했고 이베이에서 투어버스를 지원함

언리미티드는 여러 형태로 다양한 커미셔닝을 하고 있으며 특정한 작품 형식을 강요하지 않음. 단지 지원할 뿐임. 이들을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는 것도 아님. 장애 예술가들의 능력이 예술계에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원한 작품을 보고 진심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임. 예술기관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야 하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 예술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예술계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함. 장애 예술의 뿌리는 1960년대의 장애 운동에서 스타트랙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는 장애인들로부터 시작되었음. 영국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주류 영화부터 연극, 무용까지, 예술계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은 매우 낮으며 높은 퀄리티와 창조적 당위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자선이 아니라 평등으로 나아가 렌즈의 초점을 새로 맞춰야 함. 장애인은 외계인이 아니며 인간이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함. 관객으로서, 참여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음. 결국 장애는 사회와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예술 안에서 장애에 대한 장벽이 있는 것도 우리의 책임임. 다시 렌즈의 초점을 맞출 때이며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램

<sup>1</sup> <https://www.britishcouncil.org/london-2012/culture-heart-games/unlimited>

<sup>2</sup> [https://dublintheatrefestival.com/Online/Backstage\\_in\\_Biscuit\\_Land](https://dublintheatrefestival.com/Online/Backstage_in_Biscuit_Land)

## 세션 1. 영국과 한국의 장애 예술 정책 현황

### 1) 영국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sup>3</sup> 문화 다양성 정책

#### 아비드 후사인(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이 컨퍼런스의 성공 지표는 바로 한국 장애 예술인들과 영국 장애 예술인들이 서로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과 서로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창의적인 당위라고 부르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 측면과 문화 예술계 측면에 있어서의 통계치가 어떤지 이야기하겠음.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프레임 워크는 중요하며 장애 예술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정책적으로 주력하는 분야가 다양성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관객 역시 다양한 지역의 공동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평등 분석인데, 정책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펀드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창조적 당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을 위한 대화임. 다양성을 우리 모두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혁신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지원하며, 다양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은 수준의 창작을 이해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음. 창조적 당위성의 핵심적인 분야는 접근성에 대한 장애물을 치워내는 것이며 배경과 출신과 상관 없이 모든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임

#### 내셔널 포트폴리오 펀딩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내셔널 포트폴리오 펀딩 계약 하에서 어떻게 다양성에 기여할 것인지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등 수립 계획을 기획해야함.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펀드프로그램을 다양성이란 가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높은 퀄리티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인 투어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체인지 앤 메이커스"를 통해서 장애인 및 소수인종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첫 번째 프로젝트는 "Ramps on the Moon"이었고, 지원 금액은 장애 예술에 대한 단일 지원으로서는 최대 금액을 지원함. 덕분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지 알게 됨. 장애 예술인들과 연출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장애인 배우와 감독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창출하려고 했으며, 다양한 관객 발굴에도 초점을 맞췄음. 이 모든 지원은 문화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며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임. 이 외에 "Extraordinary Bodies" 라는 지원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장애인들로 구성된 서커스단에 3 년에 걸쳐 장기적인 투자지원을 하였고, 오픈 액세스 프로그램으로서 네 편의 초상화 작업을 진행함. 이 또한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최대 지원이었음. 영국에서는 노동 인구의 19%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예술계에서는 그 비율이 4% 밖에 되지 않음. 이제는 장애 예술인들과 정책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함. 펀딩을 받는 기관과 함께 최고 임원진 가운데서 장애인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였고, 경영진의 대표성은 많이 떨어짐. 약 600 여명의 임원 중에 장애인 임원은 32 명밖에 되지 않았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됨. 장애 예술의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초래됨. 우리가 이러한 도전 과제를 응전해 나감에 있어 정보수집의 수준을 높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국제 협업이 핵심이고 이로 인해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음.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야 말로 장애 예술을 쇼케이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어제 오늘 다양한 대화를 통해 양국의 장애 예술에 대한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더불어 함께 변화의 촉매제를 찾아 협력할 영역을 규명할 수 있을 것임. 한국은 다양성에 투자하고 있음. 동계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sup>3</sup> <http://www.artscouncil.org.uk/>

## 2)한국: 장애 예술의 현황<sup>4</sup> : 한국 장애 예술 정책이 걸어온 길

정종은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의 장애 정책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분리와 수용임. 장애인을 수용하고, 격리하고 그 쪽에서 채워준다는 관점으로 시간이 지나 재활과 보호라는 패러다임으로 나타남. 이는 1980 년대에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같은 굵직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장애를 대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고민한 결과로 보여짐.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 매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재활과 보호의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됨. 1998 년에 제 1 차 장애인 복지 발전 6 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제도로 나아갔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인권과 소셜 인클루전(사회적 통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음. 세 단계를 거쳐 오면서 장애 예술관련 정책도 논의되고 있음. 2005 년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 부문이 문화체육관광부 넘어오고 나서부터 문화예술 정책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되었고, 2008 년에 장애인 문화 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가 이뤄지면서 2008 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이라는 기념비적 사건이 일어남. 그 이후로 문화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눈에 띄게 일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국고 5 억원을 지원받게 됨. 2009 년도에는 장애인 문화 체육과로 이름이 확대 개편되면서 장애인 문화가 전담과를 갖게 되고 현 정부로 넘어와서는 체육국에서 문화국으로 이관이 됨. 문화 다양성 법안이 추진되면서 문화부 안에서 장애 예술을 지원할 근거가 생겼음. 점차적으로 장애 정책이 체계화되고 전담 조직이 생기면서 민간 장애 예술 단체에서 파트너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자리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작년에는 이음 센터가 생겼음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장애 예술단체들이 그 주축이 되어야 한다. 장르별 협회가 필요하고 장애층이 그걸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학예회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 내가 연구했을 때만 해도, 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같은 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정부와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부 하의 무수한 기관들이 있으며 인클루시브 아트의 인식을 끌어올리는데 장문원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음. 환경 인프라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문화 다양성 분야엔 힘을 준 건 사실임. 또한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원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음. 다른 문화 예술 분야엔 진흥 산업법이 다 있는데, 장애인 예술과 연관된 지원법은 없음.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장애 예술의 의지를 꺾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비장애인들이 73.8%, 장애인들은 38%가 문화예술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음.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쿼터를 마련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제일 중요한 것은 물적인 인프라이기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장애 예술인들 역시 동의하는 말임. 현재 장애 예술 예산은 문체부 전체 예산은 0.3 퍼센트밖에 안 됨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경험들이 많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순환인데, 장애인 예술계에는 여러 방향의 순환이 꼭 막혀 있는 것 같다.” 장애인 문학가가 대학 엠티에 가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음. 창작, 제작, 유통 부분에서 장애 예술가조차 장판(장애인 판)과 본판(원래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계도화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함. 단지 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 사이의 공통의 관심사를 맞춰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한국의 장애인 소득이 비장애인 소득의 53% 임. 시장도 1/4 정도로 좁고 한국의 예술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장애 예술로 생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태임. 장애 예술계에서는 고립에서 벗어나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장애 예술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훌륭한 장애 예술가를 찾아 장애 예술을 기획하고 여러 기관에 장애 예술가를 프로모트하는 장애인 에이전트가 필요함. 비장애인 에이전트도 상관없음. 이들이 매니지먼트, 프로모터,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앞서 말한 대로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민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사이를 연결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야망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임

<sup>4</sup> <특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문화정책의 생태계적 접근에서 인문학적 관점의 필요성: 장애 예술의 사례에 근거한 시론(試論)>  
한국미학회, 정종은. 참고

### 3) 토론

**홍기원(숙명여대):** 세계 정치의 흐름은 포용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를 겪고 있는 와중에 포용성과 다양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낸 점을 뜻 깊게 생각함. 장애 예술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먼저 정책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음. 한국은 2005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하게 됐고, 작년에 제정된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부터 성소수자까지, 소수성에 관한 다양한 카테고리를 존중해야한다는 선언에서 시작됨. 사회의 큰 관점의 변화를 요청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장애인 법률 지원에 관한 정책 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영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단 하나의 용어는 정할 순 없을 것이지만 다양한 주체들을 고려하게 하는 관점의 전환이 있었는지, 이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함. 또한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 역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 장애 예술은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예술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정치적 정체성과 예술적 표현 모두를 성취한다고 할 수 있음. 언리미티드가 설립되어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콜을 보냈을 때 여기에 부응할 만한 필드가 있어야 가능했다고 보는데 교육과 참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함

**조 배런트:**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함. 예술가는 재능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느냐와는 상관 없음. 아마추어 분야에서 장애인 커뮤니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재능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정책이 필요했음. 시민운동이 꽃을 피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애 예술이 정치적이진 않았음. 그 때 당시 장애 예술은 정치적인 색채를 가질 수 밖에 없었으나 이후의 장애 예술 중 일부는 비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함. 관객의 해석에 따라 작품이 다양하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재능 있는 장애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중요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지, 퀄리티가 없다면 사람들은 단지 동정심을 가지는 데 그칠 것임. 그러므로 우리가 대중에게 장애 예술가들을 소개할 때는 퀄리티가 훌륭한 작품이 있어야만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음

**아비드 후사인:** 예술 정책을 개발할 때는 기존의 법제 안에 있어야 함.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당위임. 관련 연구법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단순히 법률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퀄리티에 의거하여 평가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싶음. 많은 예술가들은 기회를 향유하지 못함. 장애 예술가들을 법적 테두리에서 지원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를 다루고 예술 문제를 다루야 함.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뛰어난 작품을 보여줘야 함. 그래서 현 상황은 260개의 신청자 중에서 15개 밖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정종은:** 문화를 섹터(부문)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장애를 하나의 섹터로 제한하기 보다는, 배제와 차별이라는 장벽을 없애는 인클루시브 아트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즉 섹터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관점으로 장애 예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임. 내가 영국에서 5년동안 사는 동안 아들에게 4살 정도 많은 찰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은 매우 잘 어울렸음. 이 친구가 오른쪽 다리가 없는데도 매일 농구를 했음. 한국에서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찰리는 전혀 다른 이들로부터 눈총을 사지 않았으며 친구도 많았음. 그리고 또 한가지 예로 섬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음. 이는 장애 아동이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인데, 무려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었음. 이처럼 68혁명 이 일어나고 나서, 서구세계에선 소셜 마이너리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음. 한국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출발이 늦어졌던 것 같음. 조 배런트 선생님께 장애 예술과 히피 운동과 연관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음

**조 배런트:** 내가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 전까지 잘 모르겠음. 나도 사실 그런 경험을 겪었음. 나는 주류 대학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과거엔 청각 장애인은 구석에서 공부를 했음. 하지만 나는 그런 문제가 없었음. 이미 대학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극장실습(theatre)이라는 코스에 수강 신청을 하니 학교 측에서 립 스피커나 수화, 보조도구를 마련해주겠다고 했음. 그런 게 있는 지도 몰랐음. 시민 운동 때문에 많이 바뀐 것 같음. 장애라는 부문은 항상 마지막에 이뤄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함. 영국에선 장애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음. 노환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 세션 2 장애 예술 무용 창작 사례

### 1) 영국: 칸두코 댄스 컴퍼니

#### 페드로 마차도(칸두코 댄스 컴퍼니)

칸두코 컴퍼니는 장애 무용수와 비장애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함께 작품을 창작하며, 협업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창의력의 바탕이 되고 있음.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에 상관 없이 무용수를 고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가 다채로워질 수 있으며 칸두코 컴퍼니, 나아가 무용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임. 나 역시도 댄서임. 장애 무용수의 경우는 춤추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용이라는 분야에서 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무용수는 사람들 앞에 서고, 자신의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에게 관심 받을 수 있음. 칸두코 컴퍼니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안무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있음. 칸두코 컴퍼니는 레파토리 중심의 무용단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컨템포러리 무용단으로 공연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레파토리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며 장애인 무용수와 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음.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트레이닝 과정을 발전시켜왔으며 지금까지 50편 이상의 독창적 작품을 무대에 올렸음.

우리는 유연성과 기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칸두코 컴퍼니를 발전시켜왔음. 극장이 아닌 곳에서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나중에 있을 공연에 반영함. 문화 올림픽에서 두 명의 장애 무용수의 작품을 올렸음. 커닝햄의 작품으로 무용수 중에서 한 명은 브라질 출신임. 어렸을 때부터 무용수가 꿈이었던 그는 칸두코 무용단을 입단했을 당시만 해도 장애인으로써의 무용수를 꿈꾸는 것마저도 매우 힘든 요소였다고 함. 그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이뤄졌는데, 그 중 다른 무용단의 레퍼런스를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우리는 무용단을 위한 각색을 해봤는데, 25주년을 기념해서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해봤음

사실 무용수들이 30살만 되면 나이가 많다고 함. 칸두코 컴퍼니에선 그보다 나이가 든 무용수가 공연하고 있음. 그만큼 트레이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 어떤 방식으로 우리 댄서들을 교육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며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5살부터 25까지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선입견을 전제하지 않고 같이 모여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프로그램을 진행함. 연간 예술가 랩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랩은 무용수들이 함께 공연하고 즐길 수 있게 함. 만나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냥 해보는 것임. 여기에서 장애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혼자라고 느꼈던 무용수들이 공동체의 경험을 느끼게 됨. 또한 다양한 소규모의 워크숍을 통해서 예술가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음. 그 중 하나가 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임. 3일 코스인데 공식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 때문에 참여 교사들이 힘들어 하다가도 이내 다른 방식으로 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됨. 칸두코 컴퍼니는 이처럼 인클루시브 환경에서 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나는 칸두코와 함께 무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음

## 2)한국 빛소리 친구들 외

### 김용우 (빛소리 친구들)

빛소리 친구들 무용단은 편 앤 아트 컴퍼니에서 시작하여 2009년 우광혁 교수님이 빛소리 친구들이라는 사단법인을 이양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성격이 변했음. 빛소리 무용단은 휠체어 무용수와 스탠딩 무용수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무용단임. 우리는 다양한 공연활동을 함. 2008년도에 매개자 양성 교육을, 2009년도에는 정기 공연을 시작하였고 이후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 보이게 됨. 현대 무용이라는 분야 뿐만 아니라 한국 무용을 병행하면서 우리 나름의 무용 세계를 구축하려하며 작년부터는 핀란드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 현재는 내년에 있을 핀란드 10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 중임. 초창기에는 휠체어 무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한국 무용, 현대 무용, 힙합까지도 도전해 보았고,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 대학로 아르코 대극장에서 소극장과 대극장을 오가며 3일동안 공연을 진행한 적도 있음. 크게는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을 이야기하겠음. 한국 무용은 우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연했던 무용수들이 있으며 외부의 명성 있는 무용수들과도 같이 공연하기도 했음. 올해 정기 공연에는 작년까지 국립 한국 무용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한 분을 안무가로 초청해 멋진 작품을 준비하고 있음.

처음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무용수로 댄스 스포츠 선수 생활을 할 때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음. 특히 휠체어를 이용한 안무 등으로 어깨에 손상이 많았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힘이 덜 드는 무용적인 움직임은 찾게 되었고, 휠체어를 이용한 움직임에서 나아가 휠체어를 벗어나 플로어에서 움직이는 걸 시도했음. 휠체어를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음

현재는 빛소리 친구들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용단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음. 빛소리 무용단도 13년 동안 운영되었고, 나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만들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서 김용우 댄스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시각 장애인과도 함께 춤출 수 있는 안무, 휠체어에서 내려와 플로어에서 몸에 고정시켜서 같이 플로어에서 추는 시도를 해봤음. 나는 13년만에 개인 발표를 하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내가 창작을 하고 작품의 세계를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음. 장애인 안무가가 직접 안무를 짜고 장애인 무용수가 참여하는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음. 지체 장애인 작품에 지체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작품들임. 또 하나,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음. 악기를 하나의 신호처럼 그 신호를 듣고 옆에 있는 무용수들과 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활동임. 청각 장애인은 음악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보니, 조명의 효과를 시도했음.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 약 5년이 걸렸음.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핀란드까지 다양한 공연, 17개 공연을 준비했음. 내년에도 준비를 계속 할 것임. 국제 교류도 발전하고 있음. 내가 춤을 춘 지가 올해로 15년 정도 되었음

내가 활동을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과 앞으로 발전할 부분을 적어보았음. 전문 장애인 무용수는 열손가락 손에 꼽기 힘든데 팀에 속해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은 적음. 아마추어는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을 뜻하고 프로는 그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발굴은 할 수 있어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워 여러 사람들이 시작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남음. 장애인의 경우엔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중에 소수가 살아남기까지의 과정이 힘들. 교육의 기회가 없다 보니, 우리 빛소리 친구들같은 경우엔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다양한 안무가를 초청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함. 칸두코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됨.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단체의 지원대책과 시도가 필요함. 나는 중도 장애인 임. 비장애인이었다가 어느날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처음 휠체어를 타고 춤추게 된 것은 외국의 댄스 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본 후임. 처음에 춤을 추게 될 때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까지 내가 춤을 출 지 몰랐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음. 춤을 추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음

## 3) 토론

**페드로 마차도:** 김용수 선생님 공연 사진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음. 칸두코가 하는 일과 비슷하고 작품의 수준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음. 무용단에게 댄스라는 것이 결국 결과물임. 빛소리 친구들 무용단은 탁월한 작품을 휠체어를 이용해 만들었고, 빛소리 친구들 무용단에서는 시각장애, 청각 장애까지 함께 작품을 만드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무용수를 선정하게 된 것인지는 궁금함

**김용우:**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고, 지속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 청각장애인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음. 춤에 대해서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께 연락해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했음. 나는 10년 전에 2007년도에 아르크 극장에서 칸두코의 공연을 봤음. 장애인 무용수가 참여해서 만든 현대 무용을 처음 본 것이며 휠체어를 타고 춤출 수 있는 것이 댄스 스포츠뿐만 아니라 현대무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최석규(영국문화원):** 이 두 팀 모두 인클루시브 아트를 지향하는 무용팀으로 소개됨. 칸두코의 지향점이 인클루시브 아트의 방법론과 안무의 합일점은 무엇인가? 칸두코 컴퍼니가 인클루시브 아트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나?

**페드로 마차도:** 접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접근성이 영국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편임. 대중들의 접근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음. 장애 무용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시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음.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인 무용수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경력을 추가하기 힘들

**김용우:** 빛소리 무용단은 장애인 무용단이란 점을 처음부터 표방하고 시작했음. 개인적으로는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할 때부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외부 공연을 많이 함. 빛소리 친구들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작품성은 장애인 계를 벗어나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임. 여태까지는 '장애인 예술을 합니다, 봐주세요' 이런 경향이였다면 최근에는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공연하고 호흡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나 같은 경우에도 듀엣을 하고 소그룹과 함께 작업하고 보여주는 일도 진행하고 있음

**최석규:** 한국의 무용단은 기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음. 즉 기금의 존폐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임. 특히 장애 예술 무용단 같은 경우, 기금 의존도가 높음. 칸두코는 프로페셔널로서 공공기금에 의존하지 않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함

**페드로 마차도:** 예술위원회가 우리 기금의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대부분의 영국기관은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있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1 파운드를 벌면 2 파운드를 벌게 되니 수익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음. 다른 수입원은 신탁이라든지, 지방 정부라든지, 판매 기금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얻고 있음. 사실 공공기금이라는 문제는 흥미로운 것 같음. 왜 납세자의 돈이 무용단에 가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나는 원래 브라질 출신이며 브라질에서는 공공기금이 없음. 대신에 공연단에 세제 감면의 혜택을 제공함. 첫 번째는 전략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세 번째는 무용단이 커지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영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이 공공기금의 가치임. 도로를 깔고 보도를 교체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투자하면 우리 머릿 속에 새로운 길을 깔 수 는 것임. 납세자의 돈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

**김용우:** 한국의 장애인 무용단은 공공기금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 활동하는 단체가 작품의 질, 예술성에 치중한다고 할 때, 대중들의 의견은 갈릴 수 밖에 없음. 때문에 장애인 예술 단체와 예술가들은 대중들과 가까이 하려해야 함. 외부의 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일 년의 주요 공연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많이 나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길을 열어 가고 있음. 일산 호수공원에서 다양한 공연팀이 공연하는 무대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40-50개 팀중에 유일한 장애인 공연팀으로서 참여하게 됨



### 세션 3 미술관과 시각예술에서의 인클루시브 아트(Inclusive arts)

#### 1)영국 : Tate Exchange 사례

##### 앨리스 폭스(브라이튼 대학교)

브라이튼 대학의 부학장으로 일하면서 학습 장애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지적 장애라고 하고, 영국에선 학습 장애라고 표현함. 나는 테이트 모던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음. 오늘의 발표에선 포용적 예술에 대해 말하고자 함. 일단 인클루시브 아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아주 간단히 말해 포용적 예술은 소외된 사람들의 창작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인클루시브 아트에는 쌍방향의 협업이 필요함. 그래서 교류와 협업이 중요함. 두 번째 원칙은 누구나 역량과 지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잘못 배운 것을 백지상태로 되돌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는 교육을 언러닝(Unlearning)이라고 함.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고, 높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임. 이런 교류의 미학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협업자의 역할을 하게 됨. 도움을 주는 이는 송고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면서, 동등한 차원의 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임

그러면 우리는 포용적 예술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할지 고민해보면 열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 1) 같이 여정을 함께 하는 것. 즉 창의적 여정을 제공하는 것임
- 2) 틀. 어떤 창의적 틀이 있는가, 시작점과 타임 테이블이있는가를 고민해봐야함
- 3) 선택
- 4) 시간. 이번 주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함.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사람들을 독촉했을 때 결과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게될 수 밖에 없음
- 5) 신뢰. 프로젝트가 작업을 수주하는 쪽과 작업을 진행하는 양쪽의 관계에 신뢰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임
- 6) 불확실성. 어떠한 여정이든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음. 미지의 세계를 가기 때문임
- 7) 소통. 당신이 폭넓은 차원의 경청을 하는지, 혹은 소재와 주제를 다룰 때 어떻게 경청하는지가 중요함
- 8) 윤리. 당신이 만남과 교류의 윤리를 받아들이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됨
- 9) 자기 반성. 누구라도 잘못을 할 때가 있음. 자기 반성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한다는 것이 있음. 그렇다면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 때문에 여러 펀드 프로그램도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임
- 10) 참여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임. 사실 포용적인 프로젝트가 완벽할 순 없겠지만, 소외 배제를 최소화하는 것임. 예술을 통해서 평등의 수준을 찾는 것임

테이트 익스체인지지는 관대함, 호기심, 신뢰, 위험, 개방성, 차이라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작품을 통해 이 가치들을 구현함. 이 가치들이 포용적 예술을 대변함. 올해 테이트 익스체인지지의 목표는 교류였음.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공간을 통해 논의를 나눌 수 있게 하고,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이 예술과 여러 관계를 갖게 하며, 이것들을 젊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임. 그리고 모든 참여자에게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임. 이는 플랫폼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것임. 청년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임. 첫 해엔 50 만명의 참여가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300 만명이 참여했음. 나는 테이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브제를 큐레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큐레이션함. 테이트에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테마는 교류(Exchange)이기 때문에 협력과 교류가 필수적임. 내가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교류 활동을 했고, 그래서 국가 간의 협업, 여러 단체들의 협업, 예술위원회의 협업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

위 네이밍 뮤지엄(We Naming Museum)이라는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이 오브제에 반응하는 것을 보는 프로젝트임.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150 명의 포용예술가들이 사운드 뱅크에 전시를 진행한 바 있음. 11 명의 작가를 카트만두에 초대했음. 비오는 카트만두에서 여정을 시작함. 도로는 도시의 동맥으로 항상 도시는 급박한 시급성으로 가득함. 예술가들은 하루 동안 변하는 도시를 탐험하면서 여러 사건, 대화, 소음 등을 경험함. 이 경험이 협업의 핵심이라고 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작 활동에 영향을 끼침. 테이트 익스체인지지의 다음 프로젝트의 주제는 취약성으로 우리가 취약해질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교류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 방금 전의 발표에서 김용우 선생님은 휠체어에서 벗어나 플로어로 내려가는 시도를 하셨다고 말하셨음. 이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열리지 않는 마음은 교류에 방해가 됨

## 2)한국: 잠실창작스튜디오 사례

### 서민지(잠실창작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 창작스튜디오 중 하나이며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예술가들은 창작 지원을 받게 되고 지역을 재생하게 됨.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서교 금천 예술 공장과 같은 공간보다 먼저 시작됨. 서울에는 지난 달 개관을 한 서소문 예술센터를 비롯해 13 개의 센터가 있음. 2008 년부터 14 개의 공간이 급부상하게 됨. 지역 별로 각 장르를 중심으로 한 창작 공간이 소통하면서 운영되고 있음. 이처럼 창작 교류 공간은 예술가와 시민, 관객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모델로, 유희공간과 문화를 연계한 지역재생이 주요 목적임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시작점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장애 예술은 동등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고 있음. 우리 공간은 88 년 종합운동장에 위치해 있는데 파티션만 재활용한 공간임. 2007 년에 조성되서 2010 년까지 사단 법인 장애인 미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운영되었음. 처음엔 이 공간은 낙후된 시설에 장애인 미술 창작 스튜디오란 이름이었지만, 장애인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애인 예술가 목소리가 반영된 지역의 이름인 잠실창작스튜디오로 개명된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됨. 이렇게 12 개의 개인 창작실과 다목적 전시장이 있고, 매년 입주 공모를 통해서 시각 예술 분야의 12 명을 선정하고 있음. 현재 8 기까지 65 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음. 각자의 개인 작업실에서는 각 작가의 작업이 진행되고, 비입주 장애 예술가들도 대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비용은 아직까지 무료이며 서울시 창작 공간은 유료임

공간을 구축하니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 성인이 아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임. 크게 4 가지로 정리하자면 5 년간 운영하면서 다수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노력한 것임. 공기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람. 아카데미한 강좌도 여는데, 평론가나 큐레이터를 매칭해서 서포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함. 우리는 장애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자 타이핑을 다 지원함. 작가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이점이 있음. 작가 분들이 수혜를 보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놓고 피드백을 놓고 조력자를 추천받기도 함. 그런 결과로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되고 기획전시로 장애인 작가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갖고 있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중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 A 라는 프로그램으로, 장애 아동들의 가능성을 발굴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음. 5 명의 예술가가 이 아동들을 멘토링함.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조아 제약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임. 작품은 제약회사의 패키지에 실리게 되고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예술가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도왔음. 잠실 스튜디오를 홍보하는 기회도 됨. 이 공간이 우리 공간이 퇴실한 이후에 여러 기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봤음. 공공 미술 프로젝트 <DODODO!> 임. 스포츠 프로젝트, 페인팅하고 벽화 그리면서 새롭게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임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임.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직접 운영을 했음. 우리 입주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어 강연함.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함. 장르 별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아이들이 미술활동을 통해서 감성을 충전하기도 함. 이런 것들은 갑자기 예산들이 주어져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음. 그 때 당시는 돈을 받아서 운영했던 즐거움이 있었던 프로그램임. 지금까지 8 년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이번에 이들이 주체가 돼서 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됨. 뇌성마비가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그룹을 시작했는지 여쭙보니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았다고 함. 장애 예술가는 신체적인 제약을 넘어서 사회적인 소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술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음. 장애 예술인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재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지금은 수익 창출, 강사 활동도 하고 사례비도 받고, 공연 하고 사례비를 받게 되고 있음. 이 것은 집에만 있던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3) 토론

**김혜선(영국문화원):** 서민지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공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라는 말을 하셨음.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민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은 일년에 예산이 주어지면 정산을 해야하는 시스템과 상관 없이 예술가의 속도에 맞춰서 지원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속도로 작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상기해보고 싶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른 맥락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음. 시간과 돈, 인력문제가 같이 병행된다고 생각함

**앨리스 폭스:** 평가 관련해서 답을 드리고 싶음. 사실 조직의 펀딩을 하는 기관을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됨. 이러한 평가 방식이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함. 특히 평가 시스템 내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우리가 창작 활동에 대한 평가 방식을 새롭게 만들었음. 이 방식은 공공의 단어, 어휘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음. 말하지 않는 자들이 창작을 통해 말하는 경우도 있음. 창의적 언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인을 위한 독특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음. 마지막이 아니라 초기부터 하는 것이 평가인 것임. 함께 노력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생각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임.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 있느냐가 아님. 경험의 질에 대해 평가해야 함. 사실 우리는 매우 좋은 경험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경험 또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시간은 일단 핵심임. 내가 협력했던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은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 그렇지만 굉장히 페이스가 빠른 시대인 당대에 그들은 성취하기 힘들.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작품이 느림(slowness)을 줌. 느림을 통해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장애인들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로 공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활용공간을 줌으로써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즉 장애 예술가들의 시간을 늘리는 것임

**객석 질문 1:** 앨리스 선생께서는 인클루시브 아트를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음. 아웃사이드 예술가들이 메인스트림에서 인정 못 받고 밖에 나와있음.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야 참여할 수 있음. 인클루시브 아트가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궁금함

**앨리스 폭스:** 인클루시브 아트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정의임. 외부의 아트를 이야기할 때 외부와 내부가 같이 협력함으로써 임팩트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함. 무언가 밖이나 아웃사이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제한할 수 도 있음. 개인의 의식을 포함한 포용적인 용광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앞서 말한 언러닝(Unlearning)의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을 지우는 것이 필요함. 인식의 변화가 정말 필요한 것임. 이것은 특정 가치 시스템이 반영된 것임

**객석 질문 2:** 나는 공공미술관에서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서민지 선생님께서 공기관을 유념하라는 말을 하셨을 때, 나에게도 와닿았음. 장애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독 수혜 나눔 지원을 많이 듣는 것 같음. 영국은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타이틀로 가져가시는 지 궁금함.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테이트 모던 같은 주류 미술관에서 포괄적 예술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된 동기나 과정이 궁금함

**앨리스 폭스:** 테이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은 테이트의 고위 디렉터가 좀 더 다양한 사람이 갤러리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음. 이처럼 자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할지 고민해야 함. 한 사회의 이런 힘의 균형이나 역학 관계를 바꿔야 함. 때문에 경험을 더 창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언어의 문제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임. 사실 잘못된 언어를 하는 게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단 나음. 잘못된 말을 쓸까봐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뿐임. 장애 분야의 언어는 계속 바뀌고 있음. 사람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의거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듦. 더 올바른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언어인데 덕분에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사라지게 됨. 우리는 실수에 관대해질 필요 있음. 언어는 계속 바뀌고 사실은 단어, 아니 공통의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어야말로 이 분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음

12 월 3 일 (토)

라운드 테이블 B : 한-영 장애 예술 플랫폼 : What will be the next?

캐롤 맥페든 프로그램 매니저(영국문화원)

영국문화원에서 연극과 무용 매니저로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예술 형태는 연극, 미술, 무용, 창조, 경제, 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할 예정임. 1934 년에 개원한 영국문화원은 영국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됐고, 영국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현재 전세계 110 개 국가에서 운영 중임. 세 개의 분야는 교육, 문화, 영어임. 수치를 알려드리자면 우리 기관에 혜택을 받는 인원은 1,100 만명이 있고 온라인까지 합치면 1 억 8600 만명임. 한국에서 영국 문화원은 1973 년에 개원했고 장애 예술 아젠다를 이야기할 때 다루겠지만 영국 문화원이 평등성 다양성 포괄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평등, 다양성, 포괄성을 EDI 라고 하는데, 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키워드임. 특히 영국 내 전반에서는 장애 예술 분야에서 35 년간 활동함. 우리 부서는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음. 나는 개인적으로 장애 예술 분야에서 20 년간 근무했고 전후 스리랑카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음.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도 장애 예술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는 언리미티드였음. 또한 영국 올림픽과 장애 올림픽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리버풀에서 열리는 다다페스트 DaDaFest 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음. 다다페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양질의 작품을 제작했고 국제적인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었음. 장애 예술로 편당을 받은 작품이 남미 동남아 아시아 동유럽을 비롯한 약 20 개 국가에서 공연을 하게 됨.

향후 5 년간 우리 기관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하는 5 개 분야는:

- 1) 영국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것, 그 중 하나는 청중들이 영국의 창조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임. 또한 전세계의 예술가와 기관이 세계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함
- 2) 문화 예술 관련 정책을 가다듬고 세우는 데 지원하는 것. 2016 년 3 월, 싱가포르에서 장애 예술 포럼이 개최되었고, 국제 재단 싱가포르와 영국문화원이 장애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 이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예정임. 올해 초에 시작되어 약 몇 주 전에 끝난 일본의 포럼도 있음. 2022 년에 일본이 올림픽과 장애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국 문화원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서 노하우를 전수했음
- 3) 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임. 2012 년도에 언리미티드 축제 참가가 계기가 되어서 4 년 정도 논의를 한 끝에 브라질과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게 됨. 현재 브라질에서도 언리미티드 축제가 진행되며, 영국의 장애 예술가들이 브라질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중요한 점은 공연을 준비할 때에 장애인들이 예술가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청중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임. 브라질에 칸두코 컴퍼니에 영감을 받은 무용단이 창립되기도 했음
- 4) 전세계 예술 분야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새로운 청중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가의 실력을 발달시키고 예술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커닝햄(Claire Cunningham)은 무용수이자 안무가인데 2014 년도에 언리미티드로부터 지원을 받은 예술가임. 호주에 초청되어 3 달 동안 머무면서 여러 워크숍을 열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내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무용 워크숍을 열어줌으로써 장애 예술에 기억하는 것임
- 5) 마지막으로는 협력과 네트워크 분야의 확장임. 영국 문화를 전세계로 알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언리미티드의 일환으로 타 국가의 방문 요청을 받게 됐을 때 새롭게 협업을 함으로써 장애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임

## 신중호 이사장(이음센터)

장애인 문화의 개념과 문화예술이 장애인에게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의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 예술과 관련된 것으로는 감각과 상상력, 사고의 항목이 있음. 감각과 상상, 사고는 단순히 기초적인 연산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받아 교양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상상력과 사고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이라고 보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향유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현실임. 나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손상이나 결여가 아니라 다른 지각 세계와 생활 세계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세계라고 보고 있음. 그래서 환자들을 고치고 정상적인 세계에 걸맞게 재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일반인과의 소통을 모색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는 어떤 별난 능력이 아님. 자신들의 신체 조건에 적응하고 자신의 생활 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임. 이를 개발시키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음 센터라는 곳이 작년에 생겼음. 아까 영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2012년이 영국의 장애 예술계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음. 한국도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췄으나, 문화적인 것엔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듦. 나도 2012년 올림픽에 비올리스트로서 연주하고 왔음. 나는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이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앞으로는 영적인 것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필요함. 문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마다 열려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 2018년 평창 올림픽과 일본에서 열리는 2022년 동경 올림픽을 열리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국은 문화 패럴림픽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음은 작년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설립되었음.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세계적으로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민간 단체로 운영되는 풀뿌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장애인 예술 진흥을 위해 이음센터가 설립되었음. 이음센터는 장애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고, 하는 일은 장애 예술 업무 조사, 국제 교류, 장애 예술의 교육 활성임. 그러나 장애 예술이라는 것은 꼭 장애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이음은 '서로 이어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음'을 뜻하기도 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이 이음의 정체성임. 생긴지 1년밖에 안 되어 아직까지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1년 동안 내가 초대 이사장으로 오고 나서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조금 다른 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함께 이음'이라는 이음 콘텐츠 제작소를 만들었음.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임.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위한 TF 및 자문단을 마련했음. 장애 예술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장애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들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협약도 맺고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을 맺었음. 장애 예술가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함

'2017년에는 장애예술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갖고 있었던 장애 예술 향유 지원 사업이 우리 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음.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일을 이음센터로 이관하여, 장애 예술 활동에 전문적인 지원과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함. 올 9월에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고 배울 점들이 무궁 무진하다고 생각함. 댄스, 연극, 시각예술 등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고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빌려 페스티벌을 하는 걸 꿈꾸고 있음. 긴밀히 영국과 협업하고, 노하우를 전수 받아 언리미티드만큼 좋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싶음

## 강득주 매니저 (잠실창작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왔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07 년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장애 예술가 전용 레지던시로 설립되었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에는 매년 12 명의 입주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하고 1 년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음.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 공간은 총 13 개가 있는데 각 공간마다 예술 장르별로 특성화되어 운영되는데, 그 중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 예술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음. 입주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입주 공모는 매년 3 월에 하고 4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1 년동안 입주함. 입주 자격은 장애 예술가라는 조건만 있으면 되며 거주나 나이, 장르의 제한은 없음. 입주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무료이고, 1 년이 끝나면 다시 지원해서 입주를 이어갈 수 있음. 이동엽 작가님도 이러한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심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1 년도부터 잠실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올해까지 6 년의 기간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초기 3 년동안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었음. 2011 년도에는 입주 공간이 14 개 공간이 있었음. 공간이 급하게 조성되어 있어서인지, 여러 문제가 많았음. 오픈된 구조로 구성된 탓에 작가들이 작업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안전 역시 문제가 됨. 작가들이 제일 원하는 공간은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룸 형태의 작업실이었기에 2013 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입주 작가들의 개인 작업실을 개관하게 됨. 처음에는 작가 당 개인 작업 면적이 굉장히 좁았음.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입주실 2 개를 줄이고 개인작업 면적을 4 평 정도로 확장했음. 2012 년도에는 잠실창작스튜디오로 시설 명칭도 변경하게 됨. 그 전에는 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란 명칭을 갖고 있었음. 공간의 정체성을 장애인이라는 명칭으로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당사자에게는 장애라는 꼬리표가 거부감을 주고 있었으므로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명칭을 사용한 시설 명칭으로 변경하였음. 2013 년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속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됨. 예산이 적은 관계로 외부 기업과 연계하여 기부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 외부 지원 사업에 집중하게 되니 입주 작가들에 대한 지원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음

2015 년부터 입주 작가 인큐베이팅에 집중하게 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제일 주력하는 사업이 굿모닝 프로그램은 입주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올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입주 작가들의 교육 수준과 역량이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서 작가들의 수준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음. 그래서 미술 강좌식 교육 프로그램이 실기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다가 작년부터는 전문가들과 1 대 1 로 매칭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음. 말씀드린 것처럼 6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애 예술가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 입주 작가들도 2011 년보다 장르도 다양화되었고 젊은 작가들도 작업을 하고 있음. 영국에는 지원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 장애 예술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많이 부족함. 최초로 서울시에 이 공간이 조성될 때까지만 해도 장애 예술가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공간이 조성됐지만, 서울시 창작스튜디오 공간운영 정책과 함께하면서 예술가들의 지원 정책에 같이 편승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 예술가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올해 서울시에서 예술인 희망플랜을 발표했음. 거기 안에도 장애 예술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임. 2011 년도에 처음 운영할 때보다 지금은 운영적으로 안정되었고 입주 작가의 역량도 늘어났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장애 예술가로 한정해 입주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봄. 비장애인 작가와 장애인 작가가 함께하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이동엽 작가

나는 학부에서 미술 교육 대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하고 이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10년 정도는 시간 강사로 활동하고 아동 교육을 5년 동안 진행했음. 2000년에 '오른 다리'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가졌음. 인체의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는 불완전한 내부의 상태와 몸의 유기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개인전의 주제였음. <내 오른 다리>라는 주제전은 작가로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말하려는 것이 무언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려는 전시였음. 12살 때는 골육종으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3급 장애인으로서 내 신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와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작업했음. 그 이후에 첼시 칼리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고 언어도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음. 그리고 많이 걸어야 하는 런던 생활도 부담이 났었음. 첼시 칼리지에서는 주로 벽면 프로젝션 오브제 작품을 했음. 이후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런던에 있는 차이니즈 컨템포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기도 했음. 한국에 들어와서는 두 번의 프로젝션 작업으로 전시를 한 이후에 추상적 형상의 작업을 진행했음. 이 팬드로잉은 좀 더 구상적으로 변하게 됨. 이후 열한 번의 개인전과 다섯 번의 국제 아트 페어에 참여하였고 올해 2016년 3월에 주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전시와 뷔델스로프의 전시를 마치고 돌아왔음. 나는 이제껏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내가 신체적 핸디캡이나 장애를 이슈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장애 또는 핸디캡이 내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동기가 됐던 것은 사실임. 이 모티브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임. 그래서 굳이 장애인 작가라는 타이틀보다는 작가 이동엽으로 불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나는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깨보고자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게 되었음. 사실 나 혼자 이야기한다고 해서 외부의 어떤 울림이 있진 않겠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면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 이곳 잠실창작스튜디오에는 12명의 장애인 작가 있는데,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서 손짓 발짓 글로 써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음.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었음. 이 곳 프로그램은 우선 매월 정기적으로 스텝과 작가가 모이는 간담회가 있으며 작가들이 모여 스스로 작품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작가 모임도 있음. 이는 올해 처음 시도된 모임으로 작가들이 이곳 스튜디오를 나가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하자는 의의를 가지고 결성됐음. 또한 장애 자체를 이슈하기 보다는 작품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데 동의한 작가들의 모임이었음. 외부의 비평가와 큐레이터, 전시 기획자를 초청하여 멘토링이 진행되고, 12월에 있을 기획전 준비하기도 했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부 작가들을 초청하여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픈 아틀리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주 작가들이 스스로 교육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음. 12월 기획전을 앞두고 작가들이 스튜디오를 오픈하는 오픈 아틀리에에서 관객들 앞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솔직한 시간을 꾸리기도 함. 현재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마지막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작가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함.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작업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들에게 작품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오직 서울 한 곳에만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 내가 알기로는 서울의 창작 스튜디오 어디에서도 장애인 작가를 따로 구분하여 그들만을 위한 스튜디오를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의 특수성으로 이 공간들이 설립된 것이지만 소수의 장애인 작가들의 복지만을 위해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음. 장애인 작가를 구분하지 말고 비장애인 작가들과 같이 경합하며 작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함. 미술 관계자 관객 장애인 작가들에 대한 편견을 걷어버리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음. 누구보다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예술가라고 생각함

## 라운드 테이블

**홍기원:** 장애인 예술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오신 모든 상황을 겪은 분들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음. 지금 크게 보았을 때 정책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을 연결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슈화하고 중요성을 알려야 하는 차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예술활동의 역량을 키워서 인식 개선과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음. 이런 상황을 국제 교류라는 상황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경험이 있다면 한 분 씩 들어보고 싶음. 활동하고 있는 필드에서는 어떤 방식을 필요하다고 보는지 말씀을 듣고 싶음

**아비드 후사인:** 오늘 오전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배우게 됨.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영국에 있는 장애 예술가들도 장애 예술가 이전에 예술가로 불리고 싶어함. 정책 입안자에게 데이터적인 자료가 필요함. 정책 입안자와 장애 예술가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는 장애 예술가 및 비장애 예술가 모두에게 필요한 평등이 무엇이냐는 것임. 내가 어제 소개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프로그램들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 예술가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지원을 하되 장애 예술가가 아닌 예술가로서 보여지게 하는 것임.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먼저 예술가로서 소개하고 나중에 장애를 가진 이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임. 잉글랜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최고의 공간에서 장애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를 위해선 우리와 장애 예술가 사이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함.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함. 언리미티드 축제나 다다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들이 성공한 까닭이 장애 예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작품들을 여러 공공공간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언리미티드가 없었다면 장애 예술가들도 노출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한국에서도 장애 예술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기관이 있는 것 같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센터가 다른 기관과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질문자:** 나는 시각 장애인이자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임. 우리나라에서 제일 절망한 것이 이슈나 퍼포먼스가 없으면 배제당한다는 점임. 예컨대 나는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지원한 적이 있지만, 가시적으로 장애인 티가 나지 않는다고 떨어졌음. 장애 유형별 차별이 없을 순 없음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궁금함

**아비드 후사인:** 일단 잉글랜드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차별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음.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장애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할 때 장애 등급에 전혀 차등을 두지 않음. 어떤 장애는 눈에 보이고 어떤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을 함. 예컨대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쉽게 접근하는 빌딩은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주도적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음. 리더십이 주어져야 하는 것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입장에서 작품을 선정할 때에는,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다른 예술 작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함.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예술가들의 작품을 동일선상에 놓고 투자하려고 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들어 오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장애인 예술 작품에 두기는 함